

정읍시 '민생 중심' 시민소통실 신설

민선 8기 공약·시정 과제 실현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 5개 과 신설·2개 과 폐지...20일간 각계각층 의견 수렴

정읍시가 시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 사업 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나선다.

정읍시는 민선 8기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시정 주요 과제 실현 등 민생 수요에 중점을 두고 유사 기능 통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조직을 재설계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 행정조직은 '시민소통실' 등 5개 과가 신설되고 '성장전략실' 등 2개 과가 폐지될 예정이다. 정원은 2명이 증원된 1253명이다.

시가 '시민소통실'을 신설하는 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과 새로운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기존 '환경과'를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분리하고 '도시재생과'를 '도시과'와 '도시재생과'로 개편해 정읍 도심권 활성화를 깊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육체육청소년과'를 '인재양성과'

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진흥사업소'로, '종합민원과'를 '민원지적과'로,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기술지원과'를 '농촌지원과'로, '자원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보건소에는 '샘골건강센터'를 신설한다.

정읍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이어 11월로 예정된 정읍시의회 '제279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회 승인을 받은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시정 주요 과제 실현 등 민생 수요에 중점을 두고 유사기능 통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조직을 재설계했다"며 "정읍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농가에 무기질비료 인상분 80% 지원



정읍시, 81억6000만원 투입

정읍시가 농가제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정읍시는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으로 비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중이다.

전체 지원물량은 1만4062t, 총 예산은 시비 11억4000만원 포함 81억6000만원이다.

지원되는 가격 인상분의 80%는 정부와 전북

도, 정읍시, 각 농협이 각각 부담하며 농업인은 20%의 자부담만 하면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평소 이용하는 농협을 방문하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된 무기질비료를 올해 평균 가격상승분 80%를 사전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읍성 수 놓은 '아름다운 인파'



주민과 관광객 1000여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성곽을 아름답게 수 놓은 답성놀이가 '모양성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고창군 제공>

'모양성제' 3년만에 대면행사...1000여명 참여 '답성놀이' 장관

한국의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 중 하나인 전북 고창의 '모양성제'가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속에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치러져 성황을 이뤘다.

지난 4일까지 모양성(고창읍성)과 고창읍 일원에서 개최된 '제49회 고창 모양성제'는 역사성과 즐거움, 어울림의 주제의식을 축제 전체에 담아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고창 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에는 주민과 관광객 1000여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성곽을 아름답게 수 놓으며 축제의 백미가 됐다.

또 성 쌓기 이후에는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

술래 노래를 부르며 하나 된 모습을 연출해 장관을 이뤘고 야간에도 청사초롱과 함께 모양성을 밝히며 소원성취 답성놀이가 펼쳐져 주간의 답성놀이와는 또 다른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어 냈다.

'모양성을 사수하라(공성전)'는 나라와 고을의 안녕을 위한 축성의미를 되새기며 호응을 얻었다. 결의에 찬 조선군의 훈련과 예적의 침략, 조선 장수와 왜나라 장수의 마상전투 등이 실감나게 펼쳐지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 첫 시도된 '메타버스(가상공간) 모양성제'도 큰 관심을 끌었다. 가상공간에 모양성을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해 답성놀이를 비롯해 모양

성 스토리와 게임이 어우러져 축제에 즐거움을 더했다.

이 밖에도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행사, 거리퍼레이드, 원님부임행차를 비롯해 모양성 쌓기, 하늘에서 본 모양성, 축제 모바일 스탬프 등 전통과 모양성을 테마로 한 체험프로그램이 예정보다 대폭 확대되며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 호평이 이어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내년 50회 모양성제에서는 최첨단 CT(Culture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고창군과 모양성제에 관심을 갖고 힘찬 응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2024년 신규사업 1조3357억 규모

통합하천·배수개선 등 171개

남원시가 민선 8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최경식 시장 주재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민선 8기 남원시의 새로운 변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남원시는 전 부서가 고민과 노력을 거듭한 끝에 총 1조3357억원 규모의 171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보고회에서는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지역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대상이 된 주요사업은 ▲요전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489억원)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200억원) ▲부절-남계지구배수개선사업(213억원)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200억원) ▲드론 항공산업 단지 인프라 구축(150억원) ▲울림목공예 전시관 건립(100억원) ▲청소년예술센터 조성(50억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조성(22억원) ▲남원형 스마트 통합돌봄 고도화 모델 구축(20억원) ▲남원 야구장 건립(60억원) ▲동문뱀마을 도시재생사업(133억원) 등이다.

시는 연말까지 발굴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타당성을 보강한 후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 분석과 동향파악으로 추가 대응이 가능한 공모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저소득층 260세대에 LED 무상교체

고창군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인증 LED조명 무상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올해 총 사업비 1억2400여만원을 들여 260세대의 조명기기 교체를 목표로 현재까지 167여가구의 전기설비를 완료했다.

추가로 오는 11월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무상교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소비되는 전력을 약 3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저소득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이번엔 교체하는 LED 조명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운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고창군은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 가스, 난방분야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